

#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4·16 연대  
발 신 (담당 :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010-2061-5034,  
4·16연대 국민대책회의 이재근 공동상황실장 010-9727-4035)  
제 목 4.16 추모행사 관련 입장 발표 및 이후 계획 관련 기자회견  
날 짜 2015. 4. 17. (총 5 쪽)

## 보 도 자 료

### 4·16 추모 행사 관련 입장 및 이후 계획 발표 416연대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7일 (금) 낮 12시, 경복궁 광화문 정문앞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는 2015년 4월 17일(금) 낮 12시 경복궁 광화문 정문앞에서 4·16 추모 행사 관련 입장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기자 및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붙임자료 2.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3. 세월호 1주기, 경찰들에게 막혀 광화문 광장에서 밤을 지새운 세월호 엄마아빠들의 호소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명칭 : 4·16 추모 행사 관련 입장 및 이후 계획 발표 416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4월 17일 (금) 낮 12시
- 장소 : 경복궁 광화문 정문 앞
- 주최 및 주관 : 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순서

사회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1) 4·16가족협의회 대표자 인사말
- 2) 4·16 추모행사 관련 발언
- 3) 이후 계획 발표 및 4/18 범국민대회 참여호소 발언
- 4)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및 발언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1년, 대통령은 없었고, 경찰의 폭력만 난무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은 어제,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었다. 대신 경찰의 폭력만 난무했다. 대통령이 사라진 도심에서,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상식적인 외침이 권력안보를 위해 동원된 황견들에 의해 짓밟혔다.

대통령은 안산에 모여 있는 가족들을 찾아오지 않았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는 위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폐기도, 세월호 인양에 대한 확답도 없이, 가족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조롱했다. 그리고 10일간의 외유를 떠났다. 그 결과 가족들은 안산 분향소에서 예정된 추모행사를 열 수 없었다. 참된 추모는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는 7만 명의 인파로 엄수되었다. 광화문 분향소에는 자정 너머까지 수만의 헌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손에 손에 국화꽃을 든 행렬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분향소로 향하자 경찰은 모든 주요 도로를 차벽으로 물샷 틈 없이 봉쇄했다. 참사 1주년, 가족과 국민들의 분향행렬은 이렇게 경찰의 완력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은 광화문 주변의 주요도로로 향하는 모든 인도를 봉쇄했다. 경찰은 합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마치 공공의 적처럼 취급했다.

분향소로 가지 못한 가족과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도심 전역으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곳곳에서 경찰의 무도하고 불법적인 장벽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가족 한 분이 갈비뼈 4개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부득이 광화문 앞 인도에 주저앉은 가족과 시민들에게도 경찰의 폭력진압이 가해졌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학생이 연행되었다. 그들은 도로도 아닌 인도에 평화롭게 앉아 자유발언을 경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법집회 현행범'으로 몰려 강제로 연행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 주저앉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참사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가족 품에 데려 오기 위해 진실규명과 인양을 호소하는 추모행렬을 경찰력으로 가로막고 최루액을 살포하면서 이 나라 공권력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권인가! 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도망치듯 가족들을 피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는 초법적인 물리적 폭력을 퍼 부어대는가 !

‘국가개조’를 말하고 ‘관피아 정피아 척결’을 소리 높여 외치던 정권이 스스로 정경유착의 몸통이 되어 이 나라를 민주주의가 숨 쉴 수 없는 삼류 통제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사는 것이 참담하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거나 냉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가족과 시민들은 이 곳 광화문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 시민들을 기다릴 것이다.

4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전국의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가족을 떠나보낸 지 1년, 제대로 된 추모조차 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경찰력에 둘러싸여 비통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러 와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민들 스스로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4월 18일, 가족들 곁으로 모여주실 것을 호소한다.

평화적인 추모행진 가로막는 폭력경찰 규탄한다.  
세월호 가족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국민이 필요할 때 사라지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위헌위법 대통령령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실종자를 가족 품에!

2015. 4. 17.

4.16연대(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

■ 붙임자료 3. 세월호 1주기, 경찰들에게 막혀 광화문 광장에서 밤을 지새운 세월호 엄마 아빠들의 호소문

우리 아들을 못 본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광화문에 아들 영정이 있어 시청에서부터 꽃 한 송이 들고 오다 경찰에 의해 막혔다. 또 한 번 기가 막혔다. 우리 아들. 사고 났을 때도 기가 막혀 일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기도 싫은데... 다른 부모님들께서 광화문 현판 앞에서 연좌하고 계신 다기에 우여곡절 끝에 겹겹이 쌓여있는 경찰들을 지나 힘들게 들어왔다. 대학생들 도움을 받고 날을 섰다.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며 긴 생각을 했다. 우리 아이... 작년 4월도 엄청 추웠다. 우리 아들. 우리 아이들. 사고 순간 얼마나 무섭고 추웠을까? 아이를 생각하면, 그 녀석들을 생각하면 이런 추위 따위, 이런 희생 따위 아무 것도 아니다. 내 사랑 아들, 무지 그럽고 보고 싶습니다. 이 길이 길다해도 엄마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수가 없어 앞으로 나아가니, 그것을 호도하는구나. 뒤가 아쉬워 뒤를 돌아보니 앞에 분노가 쌓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해 주춤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 한은 그칠 줄 모르고, 눈물을 닦아 줘야 할 엄마 아빠들은 자신의 눈물을 닦기에도 벅차고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는구나. 이 구멍난 가슴은 분노와 통곡과 절규에도 막아지지 않고 뒤에서 불어오는 호도에 더욱 커지기만 하네. 악의 무리와 싸워보지만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약한 내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 훗날 좋은 세상에서 우리의 예쁜 자식들 만날 때 조금이나마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것이라도 해야지. 오늘도 분노와 서러움과 그리움으로 해가 지고 또 떠오르겠지. 시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만나러 와 주십시오. 전국에서 모여주십시오. 안전한 나라 함께 만들고 세월호 진실도 함께 찾으십시오.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내 자식에게 살기 좋은 나라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아니 박근혜는 우리 아이들을 수장시킨 것처럼 어제 4월 16일 우리 국민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이 가장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국민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땅을 밟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그저 평범했던 우리 엄마 아빠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저 금지옥엽 귀했던 내새끼 어찌 그리 황망하게 떠나야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희를 자꾸자꾸 고립시켜 작은 섬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섬 하나는 주변에 우리 아이들을 삼켰던 그 시커먼 바닷물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숨을 쉬지 못하게 하네요.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 주십시오.